

스포츠도시 1번지로 우뚝

순창군 추진 마케팅 성공적 44개대회 120개 훈련 유치 120억 직·간접적 경제파급

순창군이 추진한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며 올 한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추진한 스포츠마케팅 결과 전국단위 대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대회를 44개 유치해 선수단과 관계자 8만3,800여명이 방문했으며 120개팀이 순창에서 전지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파급효과는 120억원 정도를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대회유치 실적은 비슷하지만 올해는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방문인원이 늘어 경제효과도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순창군은 회장기전국 정구대회 등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가 성공했으며 특히 테니스, 정구에 머물던 종목을 야구로까지 확장했다. 유소년 야구대회에는 2월과 10월 두차례 치러졌다.

2017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는 38개 시군에서 76개팀이 참여해 149경기를 진행하면서 1,000여명의 선수단과 500여명의 임원, 심판진 등이 순창을 방문했다.

10월 치러진 강천산배 유소년 야구대회에도 28개 시군에서 57개 팀



순창군이 추진한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가운데 김포시 어린이 야구단이 순창군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000여명의 선수단들이 순창에서 4일간 머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스포츠 대회가 연중 열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스포츠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들이 순창에서 숙박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큰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식당에 빈자리를 찾기 힘든 진풍경도 벌어졌다.

실제 유소년 야구대회 기간에는 선수들의 숙박 장소로 읍내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면지역 숙박업소도 활용

될 정도로 상황을 이뤘다. 특히 순창군은 대한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협회장기 전국 정구대회 등 내년도 대형 정구대회 8개 대회 유치를 확정해 내년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우리군은 올해 전국단위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마케팅의 범위를 확장했다"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대회를 유치해 순창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달빛철도 조기건설' 국회서 머리맡대

광주~남원~대구 191km 5조원 이상 사업비 소요

지자체·국회의원 등 포럼 내년도 사업착수 위한 경주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조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9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해당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포럼은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 추진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부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박사의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의 '남부경제권, 달빛내륙철도가 시작이다' 주제의 기조발제가 진행되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계명대학교 김기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국토교통부),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패널 8명이 참여해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과 조기 건설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중점 토론을 이어나갔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남원~대구를 잇는 총연장 191km에 약 5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사업이다.

지난 10월에는 노선이 통과하는 9개 지자체의 실무자 협의회를 출범시켜

사업추진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사업을 본격도에 올려놓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2~3월 경에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3억원을 투입해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9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문화 등 다양한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임실군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산타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전년도 축제 자료사진.

크리스마스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임실군, 23~25일 산타축제 열어... 낭만·감동 선사

올해 임실(치즈축제의 대성공에 힘입어 축제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임실군이 한 겨울 크리스마스를 맞아 낭만과 감동의 '2017 임실 산타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17 임실 산타축제'를 열고,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연대회와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이색프로그램은 '17명의 산타를 찾아라'로 평소 선물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선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과 연인, 친구 할 것 없이 사진신청을 통해 17명의 산타를 모집, 소중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한다.

매일 2회 테마파크 행사장에서 '염광마칭밴드'의 환상적인 공연과 '산타플래시몹 퍼레이드' 팀

이 함께 어우러진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놀이시설도 마련돼 있다. 공연장에는 눈썰매와 다른 즐거움을 주는 10m 길이의 얼음미끄럼틀이 설치돼 있다.

이밖에 테마파크 잔디언덕에서 잔디썰매를 탈 수 있으며, 전자현악, 댄스, 마술, 서커스저글링, 빼빼로 빈 등 다양한 볼거리와 목공예체험, 화덕피자 만들기, 산타양초 만들기, 사색업서 만들기, 연 만들기 등 충성한 체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심민군수는 "추운 겨울에 마땅히 오갈 데가 없다면, 가족·연인 등과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산타축제에서 즐겁고 멋진 추억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전립선암 무료검진으로 환자 2명 발견... 사업효과 특출

순창군이 올해 추진한 전립선암 무료검진에서 암환자 2명을 발견하면서 사업 효과를 특출히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립선암 표지자 검사를 통해 전립선 암환자를 발견해 상급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유질환자 14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만50세 이상 70세 이하 순창군민 403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으나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 측은 내년에는

검진 대상자 연령기준을 50~75세 이하로 5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조정해 많은 군민들이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방법으로는 설문지 작성 후 혈액검사(전립선암표지자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1주일 이내에 유선으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남성의 10대암 중 5위인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50대 이상의 전립선암 정기검진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년 남성들이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순창군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밤에도 민원서류 발급 '이상 무' 무인발급기 앞 LED 전광판 설치

순창군이 최근 군청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군민들이 24시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종 민원서류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총 7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데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졌으나 LED전광판 설치로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여 앞으로 군민들의 이용이 한층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상황을 보면 12월 현재 5,500통이며 이는 읍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군무시간내만 발급가능)발급 통수를 합산한 것으로 매년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군청 민원실에는 농협 365코너가 설치되어 군무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설치를 계기로 민원실과 분리시켜 무인민원발급기와 농협 365코너를 24시간 동시에 가동해 군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시정 발전사업 발굴 토론회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정 발전사업 발굴에 일선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었다.

시는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시정 발전 사업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특정한 서식 없이 발전사업을 제안 받았다.

발굴된 사업은 국가예산 발굴 사업 포함 총 136건의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시는 18일 회의실에서 시장, 국·소·실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굴된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은 문화관광, 지역경제, 농림축산, 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건의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총사업비

는 1만1,127억원(국비 10,165, 도비 156, 시비 737, 기타 69)이다.

발굴된 사업 중에는 달빛소리 동굴 조성사업, 국립 가야문화유산 박물관 건립, 뒷밭재 무동력썰매장(투지) 조성,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센터 신축, 목기 비즈니스 모델 구축, 남원 장인 게스트 하우스 운영, 지리산 문화의 길 조성, 금암봉 스카이라워 구축, 화강봉썰매장 구축 등 참신한 사업 아이템이 제시되었다.

시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내용을 고도화하고 2018년 시행 가능사업, 국가예산 확보사업, 장기 발전사업으로 구분 시정발전 전략을 기구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